

청년주보



그림 | 강 마리아

입당송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이사 8,23ㄷ-9,3

화답송 시편 27(26),1,4,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 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1코린 1,10-13,17

복음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 4,12-23(또는 4,12-17)

영성체송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조영래 베드로 신부
청소년국 중고등학교 사목부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마할키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청소년국에서는 해마다 해외원조주일 즈음에 해외봉사 관련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마할키타’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봉사활동을 갑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해외봉사활동은 봉사시간도 인정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해외봉사를 가려는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신기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곳인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은 마닐라에서 약 1시간 떨어진 빈민지역으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수녀님들께서 어린이집과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수녀님들은 나보타스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친구들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어린이집 교육과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나보타스 현지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필리핀 친구들도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서 온 저희 봉사단들을 연예인들을 맞이해주는 것처럼 엄청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또한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필리핀 현지 가족들과 친교를 나눕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봉사활동 중에서 홈스테이를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 하나만으로 참가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내어주는 홈스테이를 참가자들이 경험하면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보편교회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오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체험하고 왔다고 고백합니다.

해외 원조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곳의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지구시민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들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느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느님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많은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국제긴급구호를 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냐의 유명한 의사에게 봉사를 왜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을 버는 데만 쓰는 건 아쉽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삶!’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가오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일상생활을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전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의미 있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고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카툰”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수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
예수회

나에게 주어진 소명

저희 예수회의 양성과정 안에는 수도회가 하는 일(사도직)을 미리 체험해 보는 중간 실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회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도직 혹은 교회 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회 입회 전에 외과 의사였던 경험을 살려 현재 모교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회 후 5년 만에 돌아간 병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설렘도 잠시, 주 2~3회의 야간당직을 포함해 80~100시간의 살인적인 근무 강도에 지쳐 저는 이내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있는 그 누구도 저를 수도자로 보지 않고 그저 동료 레지던트로만 바라보는 현실에 제 마음 또한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작은 위안과도 같은 하느님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제가 일한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적응하기에도 정신없던 무렵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급한 콜이 왔습니다. 병동 환자 A님의 혈압측정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히 달려가면서도 제 마음에는 불안감이 먼저 앞섰습니다. 평소 치료실에서 마주한 A님은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A님은 산재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전신이 마비된 채 이미 10여년을 투병하였고, 요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는 암 말기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도착해보니 A님의 곁에는 오랜 기간 그 분을 간병해 온 부인이 오열하고 있었고, A님은 얇은 숨만 간간히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명 치료는 안 하기로 이미 동의하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임종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A님의 부인이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딸이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 있도록 30분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 저를 본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부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남편의 귀에 대고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이에 부인이 A님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우리 딸 오고 있으니까 보고 가야지. 조금만 더 힘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였지만 아내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인지 다시 맥박이 뛰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님이 도착하기까지 30여분 동안 A님의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건넸고, A님도 온 힘을 다해 힘겹게 숨을 이어 갔습니다.

마침내 따님이 도착했고, 기다리던 딸을 만난 A님은 5분도 못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두 달 넘게 A님을 살폈던 담당 간호사 선생님도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담담한 모습으로 사망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날 만큼은 저도 울먹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망 선언을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에게 환자의 임종은 치료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A님의 임종 순간에 함께한 경험을 통해, 그리고 눈물을 통해 저는 제가 ‘사람’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 가족이 아님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분들의 사망 선언을 할 기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매번 눈물을 흘리게 되지는 않겠지만, 임종을 맞이하는 분 앞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사망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영혼과 남은 가족 분들을 위해 짧게나마 침묵 중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소명이기에.

함께 보아요
www.inigo.kr

INIGO



"하느님의 말씀 주일"

올해부터 매년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자의 교서 형태로 발표하신 교황 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를 통해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제정하셨습니다.

Q. 왜 제정하셨을까요?

교황님은 "구원과 신앙, 일치와 자비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중략) 교회가 사랑과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 번째 주일을 하느님 말씀에 봉헌한다."라고 하시며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 주일은 유대인들과 맺는 유대를 강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기간에 자리 잡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 일치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Q. 하느님의 말씀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신자들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은 편이죠. 피지켈라 대주교님은 대다수의 신자가 미사에 참여할 때만 하느님 말씀을 접한다면서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먼지가 쌓인 책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통해 우리를 하느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교황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엄숙한 날"로 지내기를 권고합니다. 성경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독서 및 심화와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소수 특권층의 소유가 아닌 하느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인 신자들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의 활동 아래 인간의 방식으로 쓰인 인간의 말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근본주의적 해석에 빠지거나 텍스트 안에 갇히는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즉,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문자 그대로 어떠한 오류도 없음을 강조하는 근본주의적 해석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매일 하느님의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과 동시대인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향량한 향수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한 실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지내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며 책장 한 쪽에 꽂혀 있는 성경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 읽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 안에 준비된 성경 관련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편집부 현성혁 베드로]

말씀과 함께하는 아미드볼 청년카페

청년들이 수녀들과 함께 성경통독, 렉시오디비나, 나눔, 기도, 성경쓰기, 상담, 차 나눔 등 자유롭게 와서 신앙의 성장과 친교를 나누는 공간

대상 20세~38세 예비자와 세례받은 청년 누구나

때 매월 첫째·셋째주(일) 오후 1시~5시 개방

곳 성바오로교육관 / 문의 010-4543-9326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교육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때, 곳 2월27일(목)~28일(금) 9시~17시,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 의생명연구원 2층 대강당

2월10일까지 접수 / 전화 접수 후 입금바랍니다

회비 5만원(마감 후 취소 불가), 당일 접수 5만5천원

계좌 우리은행 1005-101-712022 서울성모병원

문의 02)2258-1901, 1904(<http://hospice.cmcseoul.or.kr>)